

## • AI 비상근무, 본격 돌입



▲농림수산식품부 AI방역대책상황실

협회는 지난 12월 29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AI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재가동하고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 비상근무에 돌입하였다.

또한 협회는 신속한 대처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AI방역 대책 상황실에 직원 한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AI 발생관련 실시간 상황을 발 빠르게 전달하여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협회는 비상근무 지침에 따라 AI발생지역의 카메라 취재 자제 요청, 언론사의 AI 과대보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종오리 및 철새도래지 여찰 활동, 오리고기 소비홍보, 등 AI로 인한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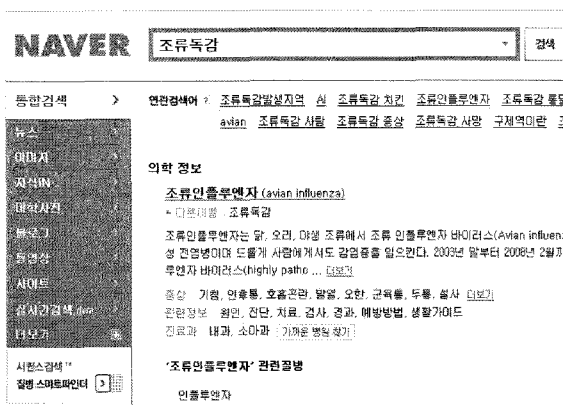
## • ‘조류인플루엔자’

### 단어오용(誤用)에 관한 정정 촉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조류인플루엔자를 조류독감으로...

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조류인플루엔자를 조류독감으로 오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네이버 고객센터에 즉시 정정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평소 네이버는 검색창의 메카로 불릴 만큼 네티즌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포털사이트로 사용자가 검색창에 오용 단어를 입력할 시 올바른 단어를 연결해주는 안내서비스를 자랑해왔다. 하지만 최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중요한 시점에 의학정보 상위에 ‘조류독감’이 링크되어 있어



사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검색창에 ‘조류인플루엔자’와 ‘AI’ 등 올바른 단어를 입력하여도 통합검색 페이지에 ‘조류독감’으로 안내되어 마치 ‘조류인플루엔자’가 오용 단어인 것처럼 사용자들에게 혼선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질병에 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만큼 협회는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네이버에 올바른 용어를 표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네이버포털사이트는 기존 상위에 링크되어있던 조류독감을 조류인플루엔자로 변경하였으며, 잘못된 용어 ‘조류독감’ 검색시에도 ‘조류인플루엔자’로 안내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